


한국사회, 돌봄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

연자 강주성 대표(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)

일시 2023. 2. 22. (수) 15:00 ~ 16:30

장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대회의실
(온라인 동시진행)  zoom

☑ 참여방법

1. 현장 참여 방법

-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대회의실 방문(사전 신청필요)
(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 2층)

2. 온라인 참여 방법

- 링크 : <https://url.kr/x6ogty>
- 회의ID : 919 712 5522
- 암호 : 230222



※ 온라인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[QR코드](#), [회의ID](#)를 통해 사전등록 없이 당일 참석해 주십시오.

모시는 글

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

고령화 사회 속 유병장수(有病長壽)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의료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확대되고 있습니다. 의료는 진단 및 치료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로 케어(care)가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지만, 행위 중심의 의료 및 수가 체계는 필수적 의료 범위 내 간호 외 상당한 돌봄의 문제를 가족의 부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.

실제 우리 사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돌봄의 방식 및 체계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고, 독거노인 증가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현실화 등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고와 질병, 노화 등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는 처할 수 있지만, 가족들의 몫으로 남겨진 돌봄의 부담과 이로 인한 돌봄과 간호에 대한 사 보험의 증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대비가 미흡합니다.


최근 간호와 돌봄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의료로의 인정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,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기관 및 돌봄 기관 등에 대한 감시와 법적 대응 등 돌봄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

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3년 첫 콜로키움 주제로 '돌봄과 간호'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우리 사회에서 돌봄과 간호는 어떤 모습인지,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발전되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

프로그램

시간	내용
15:00~15:10 (10분)	안내 이은영 팀장 정책연구부 정책개발팀
15:10~16:00 (50분)	주제발표 강주성 대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
16:00~16:30 (30분)	토론 백수진 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

- ☑ 이번 콜로키움은 현장에서 연자분을 초청하여 대면으로 개최되는 행사로, 현장 참여를 원하는 분들에 한해 [사전 신청](#)을 받고 있습니다. 현장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 (joh0417@nibp.kr)로 **2월 15(수)까지**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☑ 콜로키움 참여 후 만족도 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(정책원 홈페이지-참여-KoNIBP설문).
1) 링크 : <https://url.kr/yc2rt1> 2) QR코드 : 

- ☑ 지난 콜로키움은 [생명윤리센터 유튜브채널](#)에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정책원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- 링크 : <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PkZ1AVMaOhYcYS8Ws828RA>



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



- ☑ 문의 : 정책연구부 정책개발팀 조계형(Tel. 02-737-8452 E-mail. joh0417@nibp.kr)